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[ Catch Bear (캐치 베어) ]** | | | |
| 13 주 | 2022. 3. 20 ~ 2022. 3. 26 | 작성자 | 박소영 |
| 이번주  한 일 | **[0] 공동**  **3. 21) 교수님 연구실 방문**  - 4월 말까지 한 스테이지가 게임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.  - 4월 말까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업 한 후, 우선순위를 정할 것  - 전체 게임을 봐주고 일정을 정리해줄 대표자 정하기  - 서버 패킷을 정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받을지 많이 얘기해보고 공유하기  -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고,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 **3.21) 임시 회의**  안건 – 4월 말(중간발표)까지 해야 할 일 리스트업  4월 말 중간발표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생각해본 다음, 각자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했다. 정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의 주차별 계획을 세웠다.  **[ 김우찬(서버) ]**  1. 서버에서 충돌체크  2. 플레이어 이동 동기화  3. 아이템 생성 동기화  4. 술래 정하기  5. 술래 넘겨주기  6. 대기실  7. 채팅  **[ 박소영(클라이언트) ]**  1. 카메라 회전  2. 아이템 생성  3. 아이템 효과 🡪 플레이어 상태 or 능력치 변경  4. 보물 생성  5. 플레이어 점수 계산  6. 3인 플레이어 순위 결정  7. 아이템 이펙트  **[ 고은비(클라이언트) ]**  1. 플레이어 애니메이션 (IDLE, WALK, DASH, ATTACK, DAMAGE, VICTORY)  2. 키 입력에 따라 플레이어 상태 구현  3. 맵 불러오기  4. 게임 제한시간 타이머(3분)  5. 타이머(폰트 or 텍스처) 렌더링, 리소스 찾기  6. UI (3인 플레이어들 점수, 자신이 지닌 아이템)  **[ 주차별 계획 ]**  **3. 24) 정기 모임 (13주차)**  **- 13주차에 각자 한 일 공유**  김우찬:  박소영: 카메라 회전 구현 완료.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카메라와 플레이어가 좌우로 회전하고 위아래 키를 누르면 플레이어와 카메라가 이동한다. 카메라 회전 다음 구현 예정이었던 아이템 생성 작업을 하는 중이다.  고은비:  **- 14주차에 할 일 공유**  아래 다음주 할 일에 서술  **- 월요일 임시 회의 후 목요일 회의에서 정해야 할 일들 상의**  1. 서버 패킷 – 무엇을 주고받을지  2. 데이터 충돌 – 서버에서 할지 클라이언트에서 할지  서버에서 하기로 결정  3. 플레이어 3인 에셋 정하기    4. 전체 게임에 대한 그림(맵 크기 등)  static 오브젝트들을 다 불러온 후 다다음주(15주차)에 다시 상의  5. 일반 아이템, 유니크 아이템, 보물 생성 주기  총 플레이타임: 3분  일반 아이템 - 30초마다 모든 일반 아이템(5종) 하나씩 생성  유니크 아이템 - 1분마다 모든 유니크 아이템(2종) 하나씩 생성  보물 - 1분에 하나씩 생성  **[1] 김우찬 (서버)**  **[2] 박소영 (클라이언트)**  **1. 카메라 회전 100%**  좌우 키를 누르면 카메라와 플레이어가 회전하도록 구현했다. 우리 게임은 3인칭 시점이라 플레이어가 회전하면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공전해야 하는데, 그 부분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해 행렬 계산을 하나씩 다시 생각해보면서 코드를 쳐봤더니 오류가 수정되었다. 이렇게 카메라 작업이 완료되었다.  플레이어는 좌우 키로 시야를 변경하고, 위아래 키로 이동할 수 있다.  **2. 아이템 작업 시작**  **[3] 고은비 (클라이언트)** | | |
| 다음주  할 일 | **[0] 공동**  3. 31) 정기 모임(14주차)  **[1] 김우찬 (서버)**  **[2] 박소영 (클라이언트)**  - 아이템 랜덤 생성  - 아이템 효과에 의한 플레이어 상태 or 능력치 변경  - 보물 생성  **[3] 고은비 (클라이언트)** | | |
| 문제점 | **[0] 김우찬 (서버)**  **[1] 박소영 (클라이언트)**  여태까지 중간발표 전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,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업해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다. 월요일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조언을 듣고 팀원들과 중간발표 전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, 계획을 세우니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지가 머리에 잡혔다.  **[2] 고은비 (클라이언트)** | | |